

'무이자~무이자~' 대부업 서민 울린다

200만원 빌리면 月 10% 이자에 선이자 75만원 때 과장광고 피해 커... 이용땀 금융권 정상 대출도 안돼

대부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고객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선이자 때가 무리한 채권추심 등 사금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특히 '무이자'나 '싼이자'를 미끼로 고객을 유인하면서도 대부업체 이용시 하게 되는 신용조회로 인해 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

면 지원내에 설치된 '소보센터'에만 하루평균 5~6건의 사금융 피해사례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접수되는 피해사례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선취 수수료(일명 선이자) 과다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잔여기간 이자 요구 ▲욕설 등 무리한 채권추심 등이다.

최근 상담을 신청한 A씨는 부모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는데 월 10%의 이자에 선이자 75만원을 때 125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원 민원팀 김동욱과장은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특정 연령층이 없을 정도로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면서 "신분노출을 꺼린 나머지 직접 방문해 상담하기 보다 전화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광주에만 552개에 달하며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1천800여 개가 영업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부 등록업체를 포함해 대다수의 미등록 업체들은 법정 금리의 상한선인 연 66%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불법 광고물 등을 통해 '무이자'나 '싼이자'를

미끼로 고객을 유치하면서 고객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회사원 정모(45)씨는 "올해 초 급전이 필요해 '1개월 무이자 대출'을 내세운 한 등록 대부업체를 찾아가 대출 신청과정에서 신용조회만 하고 돈은 빌리지 않았는데도 얼마전 은행에 가 대출을 신청하자 대부업체에서 한 신용조회 때문에 대출이 안된다고 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지난 해말 기준으로 국내 사금융 시장 규모는 연 18조원에 이용자 수도 330만 명에 달할 정도"라며 "이제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액 신용대출을 활성화해 사금융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제도권으로 돌려야 할때"고 설명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삼성 생활가전 해외 이전?

2012년 '가전 글로벌 톱3' 중장기 발전계획 해외공장 확충...광주경제 타격 우려

삼성전자가 냉장고를 비롯한 생활가전부분의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공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삼성광주전자의 해외이전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발표는 지난 3월 이견의 삼성그룹 회장이 생활가전 사업에 대해 "한국에서 할만한 사업이 아니다"고 발언한 이후 간헐적으로 흘러나온데 이어 삼성전자가 또다시 중장기 전략으로 밝힌 것이어서 이전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19일 2012년 '글로벌 톱3' 가전업체로 도약한다는 중장기 전략목표에 따라 해외 현지공장 확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

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프리미엄 가전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공장 확충을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해외공장 예정 부지나 일정, 규모 등 세부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멕시코·중국·태국 등 해외 5곳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가전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광주에 유일하게 생활가전 라인을 두고 있다.

이전 검토방안이 알려지자 광주시와 광주지역 경제계, 시민들은 기아차 광주공장도 함께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라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진의 파악에 등분서주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향후 삼성광주전자의 전략에 대응해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0여개에 이르는 삼성광주전자 협력업체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협력업체들은 이같은 그룹 측의 이같은 방침으로 생산라인의 해외이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신들의 업체가 피해를 보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채동석 삼성광주전자 부사장은 "이번 중장기 전략발표는 삼성광주전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삼성광주전자의 경우 이미 고부가가치급 생활가전 생산중심기지로 재편돼 올해는 지난해보다 10% 오른 3조4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경제사업 성장률 전남농협 전국 1위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가 경제사업평가에서 성장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19일 전남본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최근 전국 9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5월말 기준 경제사업을 평가한 결과 전남본부가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6.6%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남본부의 경제사업 실적은 전년 7천856억 원보다 6.6%(520억원) 증가한 8천376억원이었다.

품목별 실적은 농축산물 판매 3천19억원, 일반유통 1천626억원, 축산출하 477억원, 미곡판매 1천172억원 등이다.

올해 경제사업 목표액을 전년(1조8천억원)보다 11.1% 신장한 2조원으로 정한 전남본부는 이 추세라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본부 관계자는 "이 같은 성과는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환경 속에서도 산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출하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안전한 전남농축산물을 애용하려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호응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시중자금 증시로 몰렸다

4월, 전월比 저축성예금 4,466억 줄어

최근 국내 증시의 활황세로 인해 은행 예금 등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급속하게 몰리고 있다.

19일 광주지역 증권사들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중자금이 주식형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과 증권사 위탁계좌 등 주식 직접투자로 몰리고 있다.

더구나 지난달부터는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모두 상승폭을 키우면서 개인들 자금이 하루에 수십억원씩 들어오고 있다.

삼성증권 광주지점의 경우 지난 한 해 수탁고 총액이 2천30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9일 현재 3천800억원으로 6개월도 안돼 전년에 비해 1천500억원(전년대비 65.2%)이나 늘었다.

광주지역 위수환차장은 "19일 하루에만 30억원이 새로 들어왔다"며 "3월부터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속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이날 발표한 '2007년 4월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더라도 시

중자금의 증시 유입이 확인되고 있다.

4월 한달동안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총수신(예금)은 RP(환매조건부채권) 증가분의 영향으로 7천926억원 늘었으나, 저축성예금은 전월 증가분(5천572억원)에 비해 4천466억원이나 줄어 든 1천106억원밖에 그쳤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5.6월 통계가 나오면 확실하 확실히 수 있었지만 최근 증시 활황을 감안할 때 적금을 꺼 주식시장으로 달려가는 현상은 더욱 심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에 아파트형공장 붐 일으킬 것"

해중건설 배희원 본부장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 문화가 광주에도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일 광주지역 첫 아파트형공장인 '해중 디즈벨리' 공사현장을 방문한 해중건설 배희원(43) 개발사업본부장은 "저렴한 분양가와 각종 세제혜택 외에도 유사업종 입주를 통한 시너지효과

가 커 제조업 관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또 "디즈벨리'가 광주 첫 아파트형공장이라는 점에서 분양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 지역 내 수요자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디즈벨리'는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들어선다. 평당 분양가는 지하 1층 298만원, 지상 1층 99만원,



다. 분양가의 70%까지 장기 저리 융자가 가능하다.

한편 해중건설은 지난 1997년 창립된 중견건설업체로, 지난해 1천억원대 매출을 올려 시공능력평가 순위 153위에 올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지상 2층 595만원 등으로, 취·등록세 100%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삼성전자 '3低 세탁기'

삼성전자가 세계 최저 진동, 최소 물 사용, 최저 전력소비를 달성한 '3저(低) 세탁기'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1분에 1천200회 회전하는 최고속 탈수모드에서도 세탁기 외벽의 진동폭은 0.1mm에 불과하다. 고급 제품에 비해 전력소비는 20%, 물 사용량은 25% 절감된다.

〈삼성광주전자 제공〉

영유아식 제품서 식중독균 과다 검출 4개제품 회수 조치

식중독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시중 유통 영유아식이 회수 조치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3월부터 영유아식에 든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대한 기준규격을 새로 설정하기 위해 시중 유통중인 156개의 영유아식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의 하나로 자연상태에서도 존재한다.

식약청은 검사결과, 8개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나왔고, 이 가운데 기준치(1g당 100마리 이하)를 초과해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된 4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을 넘어 검출된 제품은 일동후디스의 '후디스 아기밀순유기능1'(유통기한 2007년 7월17일), '후디스 아기밀순유기능4'(유통기한 2008년 5월2일), '후디스(초코)Hikid'(유통기한 2008년 6월7일), 매일유업의 '베이비사이언스맘마밀'(유통기한 2008년 1월23일) 등이다. /연합뉴스

이태리가구 전문점

1년 딱 한번
7월 19일까지
% Off SALE

www.hongspace.kr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구도청앞) **홍스페이스** 빌딩 062)226-7567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제주도 제주시 연동 1372 신성빌딩 1층
☎ 616-81-11280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주세요!

뜨아아~ 목포출발, 녹동(로딩)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3일 78,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를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88,000원) 분재예술향, 일출랜드,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애보세요~

<p>목포출발 "목카투어" 78,0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차: 목포국제여객터미널 (09시 30분 또는 15시)출발-호텔1박 2일차: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등반-호텔1박 3일차: 제주관광-제주항(17:30)출발(단, 일요일은 16:30출발) <p>출발일: 매일출발(단, 토요일은 제외) -토요일출발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p>	<p>고흥(녹동)출발 "녹동투어" 78,0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차: 녹동 남해고속터미널(10시)출발-호텔1박 2일차: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 등반-호텔1박 3일차: 제주관광-제주항(18:00)출발 <p>출발일: 매일출발(단, 금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금요일출발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p>	<p>광주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69,000원(주중+주중) 179,000원(주중+주말)</p> <p>★ 렌트카 파격할인 ★ 전차종 75% 할인 ※이벤트 24시간 22,700원(네비게이션 포함)</p>
---	---	---

[1박2일 크루즈투어] 68,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3박4일 크루즈투어] 108,000원 (한라산등반+2일 제주관광) [2박 3일 크루즈+항공투어] 119,000원(주중)/139,000원(주말)

오른기름: 해저탐험 잠수함관광을 원하시면 **49,500원 → 30,000원** (단, 미리 사전예약에 한합니다. 당일 예약시 정상요금 적용)

조흥은행 708-01-074067 제주무궁화관광

문의: ☎ 064-744-1109 www.jeju.net (주)제주무궁화관광 · 협찬: 씨월드고속해리